그래프로 보는 세계농업

이번 달 그래프로 보는 세계농업에서는 OECD에서 지난 6월에 발표한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보고서를 참고하여 OECD국가와 BRIICS국가들의 농산물 교역 비중과 주요 품목별 생산 비중 및 소비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1>은 OECD와 BRIICS 국가의 농산물 교역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표 1>에 의하면 OECD 국가들은 농산물의 수출입 비중이 지난 10년 동안 감소한 반면 BRIICS와 비OECD국가들의 수출입 비중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1999년 세계 농산물 수출에서 OECD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72.8%였지만 2009년에는 64.9%로 감소하였다. 반면 BRIICS 국가는 1999년에 8.9% 수준이었지만 2009년에는 13.9%로 증가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비OECD 개발도상국들은 18.3%에서 21.2%로 증가하였다. 세계 농산물 시장에서 BRIICS 국가의 수입 비중은 1999년 6.7%에서 2009년 10.8% 증가하였고, 비OECD 국가들도 21.2%에서 25.9%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농산물 수출입 비중 변화는 상품들 간의 생산과 소비 비중이 변했기 때문이다. OECD/FAO AGLINK 자료에 의하면, OECD 국가들에 의해 생산되는 상품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OECD와 BRIICS국가의 농산물 교역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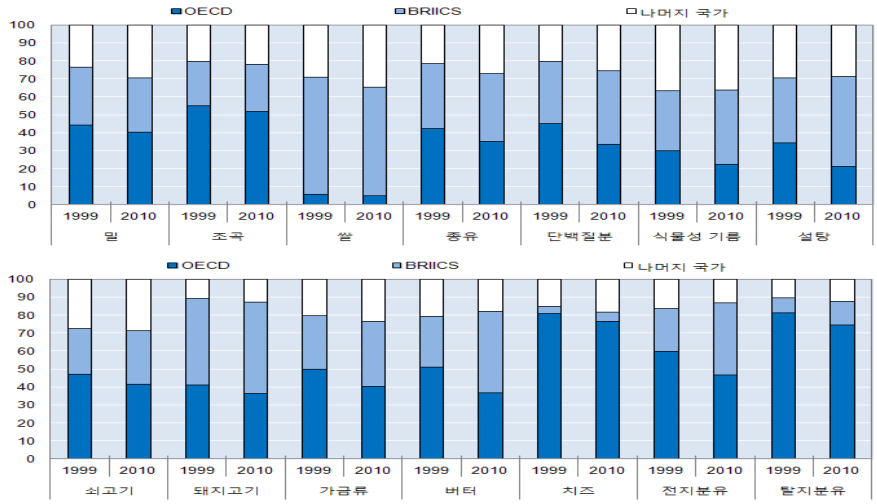
단위: %

	구분	1999년				2009년			
		수입							
		OECD	BRIICS	나머지 국가	합계	OECD	BRIICS	나머지 국가	합계
수출	OECD	57.6	2.7	12.4	72.8	49.2	4.6	11.1	64.9
	BRIICS	5.2	0.9	2.8	8.9	5.5	2.6	5.9	13.9
	나머지	9.2	3.1	6.0	18.3	8.6	3.7	8.9	21.2
	합계	72.1	6.7	21.2	100.0	63.3	10.8	25.9	100.0

자료: UN ComTrade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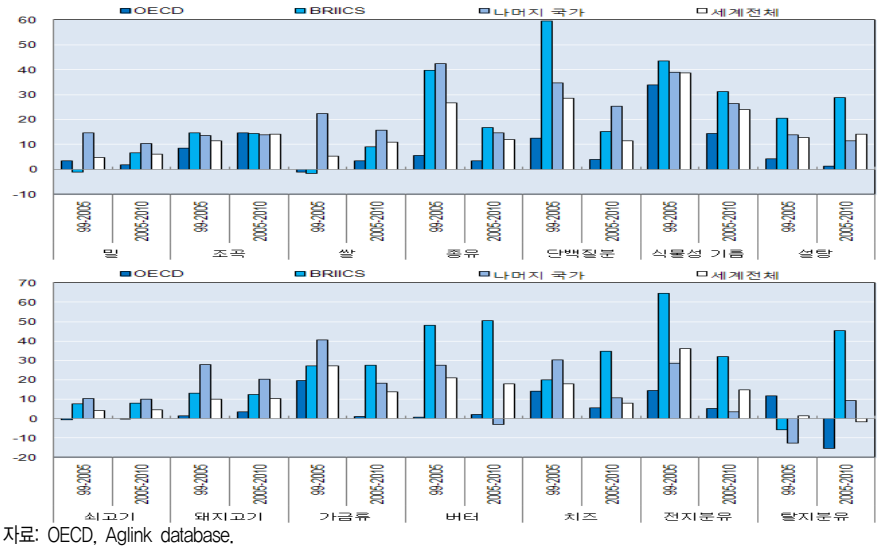
<그림 1>과 <그림 2>는 OECD국가와 BRIICS국가의 주요 품목별 생산 비중과 소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BRIICS국가들은 식물성 기름, 설탕, 육류와 가금류, 유제품의 생산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밀과 조곡에 대해서는 개발도상국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주요 품목별 소비 변화는 유제품과 설탕에 대해서 비OECD 국가의 소비 성장률이 크게 나타났다. 특히 비OECD 개발도상국보다 BRIICS 국가에서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림 1 주요 품목별 생산비중



자료: OECS, Aglink database.

그림 2 주요 품목별 소비 변화



자료: OECD, Aglink database.

참고자료

OECD,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2011.

작성자: 윤종열, 이정희.